

“고물가 불경기에 기름값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 알뜰주유소 풍경

광주 12곳 운영...‘가격 저렴’ 주유 고객 인기 일반주유소 대비 휘발유 39원·경유 52원 싸

“요즘 같은 고물가 불경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데 유류세 인하 폭도 준다고 해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찾았습니다.”

1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독립로 한 알뜰주유소.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점심시간을 막 지난 시간이지만 이곳을 찾아 주유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 (리터) 당 각각 1천688원·1천458원으로 광주 내 일반주유소 평균 가격 1천677원·1천510

원 보다 각각 39·52원 저렴했다.

주유를 하러 온 한 고객은 “인하율이 감소되기 전 기름을 넣어야 했는데 못 했다”며 “평소에도 가끔 이용하지만 인하율이 감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알뜰주유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시작된 첫날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는 ‘알뜰주유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12월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석유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류 마진이 붙지 않은 기름을 싼값에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일반 주유소 대비 낮은 가격과 품질 보장을 제공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의 ℓ 당 평균가격은 각각 1천677원·1천510원이었다.

유류세 인하를 축소 직전인 지난달 30일(휘발유 1천688원·경유1천487원) 대비로는 각각 5원 가량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폭인 6원·7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지역 전체 주유소 238곳 중 알뜰주유소는 12곳으로 비중은 5.0% 불과했다. 남구 1곳, 광산구 7곳, 북구·서구 2곳



유류세 인하 폭이 1일부터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 독립로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안태호기자

씩이었으며 동구에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알뜰주유소의 수는 적었지만 동네별로 가장 저렴한 주유소 5위 안에

유소 업자들이 고유가 시대에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희망하나 정부가 도심지역 보다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율 축소도 기존 재고가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 관계가 있어 바로 올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인상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돼 휘발유 유류세는 ℓ 당 615원에서 666원으로 41원, 경유 유류세는 309원에서 407원으로 39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안태호기자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자두’ 농협유통이 하나마트에서 여름 제철 과일인 새콤달콤한 ‘복숭아와 자두’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하나마트 양재점. <농협유통 제공>

김동수 제44대 광주본부세관장 취임

김동수(사진) 제44대 광주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

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김동수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세관장은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 등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체 정보분석 역량 강화와 첨단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마약·불법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세관장은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등 주요 분야를 역임했다. /박은성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독일 ‘레드닷 어워드’ 3관왕

‘손잡이 없는’ 드라이어 등 3건 일류디자이너 양성 ‘결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일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KDM+(코리아 디자인멤버십 플러스) 정혜원 회원의 ‘손잡이 없는’ 헤어드라이어 디자인 등 3건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55년 창설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며,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정혜원 회원이 수상한 헤어드라이어(U-DRY)는 누구나 머리를 편하게 말릴 수 있는 상호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세관장은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등 주요 분야를 역임했다. /박은성기자



정혜원 회원의 ‘손잡이 없는 헤어드라이어’ 수상작품.

인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레드닷 어워드 본상 수상은 광주KDM+ 회원들의 디자인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장실무형 디자인 인재 양성과 글로벌 디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KDM+는 지역 대학생 가운데 역량있는 디자인 인재 선발,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실무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연구, 산·학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있는 장성 오일장

황룡시장, 사거리전통시장, 사창시장

◎ 장이 서는 날 ◎

- **황룡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사거리전통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사창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성군 Jangseong** 문의 : 062)650-2099